제325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6월17일(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계속)
   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계속) ····· 1
   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국회(임시회) 제12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그 추진상황, 안전대책 및 사후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인 안전대책의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국민적 분노와 비통함을 안겨주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경기대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나위 없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안전을 최우선 삼아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 현안보고(계속)

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

(10시04분)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및 안전대책 점검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추진상황과 종합 안전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조직위원회를 지난 4월 달에 3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책임을 맡은 부위원장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진 기획행정부위원장입니다.

곽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에서 기획, 총무, 재정 전반 그리고 문화홍보, 마케팅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표 대회시설 부위원장입니다.

대회시설 부위원장은 경기장 교통망 등 대회 관련 시설 전반 그리고 수송, 숙박, 기술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직전에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운영 부위원장이 있는데 문동후 부위원장입니다만 여기서는 경기운영, IBC·MPC

등 미디어 분야 그다음에 국제 분야를 담당을 하는데 6월 말 소치 디브리핑(Debriefing) 준비 일정으로 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재윤 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15일 특위 때 뵈었는데 한참 만에 이렇게 오늘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소치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로부터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온 국민이 슬퍼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 모든 면에서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때맞춰 올림픽 안전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치 대회도 끝나고 전 세계 이목이 평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IOC조정위원회가 전례 없이 국제경기연맹 회장단들이 모두 다 함께 모인 가운데 지난 4월 29일 날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5일부터는 IOC가 주관하는 소치 디브리핑이 국내 연관 참여자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또 IOC 위원장 또 IPC 위원장도 참여해서 7월 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지 만 3년이 됐고 테스트 이벤트와 점검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 2년, 3년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평창올림픽 준비는 이제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설계 및 발주 또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아주 촉박하고 빠듯한 상황에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자 그대로 연습할 시간도, 시행착오를 겪을 겨를도 없는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국회 지원특위와 위원님들의 도움이 더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 주제인 안전은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준비과제 중 제1의적인, 절대적인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를 맨 앞줄에 또 맨 위에 놓고 정부와 개최지인 강원도, 조직위원회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제반 기획과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제 발생될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을 먼저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요 추진상황, 중점과제 그리고 평창올림픽 안전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대회 개요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쪽에 주요 중점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경기장 건설, 이 자리에 최문순 도지사께서도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강원도가 주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경기장 중에서 신설 6개, 보완 3개, 기존 4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평창 슬라이딩센터 이것은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입니다. 이미 지난 3월 5일 날 착공을 했고 2016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중봉 알파인 스피드 경기장도 금년 5월 2일 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이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16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이고 강릉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이것은 얼마 전 금년 6월 13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23일부터는 본격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신설될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 아이스하키Ⅰ 경기장은 최근에 사후활용을 고려한 설계·시공방법에 대해서 재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휘닉스 스노보드·프리스타일 경기장 또 강릉 컬링 경기장 등 기존 시설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IOC와 국제경기연맹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정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망 부문은, 제일 큰 프로젝트인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는 지금 공사 진도가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2개소도 이미, 특히 정선 중봉 알파인 스피드 경기장 가는 국도는 25% 진행 중에 있고 또 둔내-간평 간도 5월 23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와 내부연결도로, 이미 확정된 9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착공이 이제 막 되었거나 또 설계 발주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에 모두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접근순환교통망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7개소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기타 필수시설로서 선수촌·미디어촌인데 그간에 평창선수촌이 민자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용평리조트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또 염동열 해당 지역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선수촌은 벌써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했고 LH공사가 설계 중인데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7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강릉미디어촌도 같은 LH공사가 강릉선수촌과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미디어촌은 IOC와 기존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수촌과 미디어촌 계획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강릉선수촌·미디어촌이 내년 3월·6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7년 9월까지 마치는 것은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타이밍,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올림픽플라자는 횡계 시가지와 인접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개·폐회식장, 메달 플라자, Best of Korea, 여러 가지 전시관 이런 것들이 임시 내지 영구 등등해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KDI 적정성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BC·MPC도 금년 말까지 사업방침 결정을 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폐회식장과 IBC·MPC는 저희들은 지금 임시시설 개념으로 설계·건설한 후에 또 일정기간 할 수 있다면 사후 활용도 하고 또 일부 철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어쨌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설·관리대책이 되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인데 현재 통신 분야하고 스포츠의류 분야, 이 두 개 분야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됐고 협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공식 협약을 체결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은 진행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 과제인데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장·교통망 등 시설사업들의 공사기간을 어떻게 단축하고 안전과 기능성 있는 시공이 계획대로 되게 하는가 이것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기관 TF를 구성한다든지 또 공정관리 전문업체까지 참여해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등 마스터스케줄 대로 공정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플라자라든지 강릉의 체육시설단지, 스포츠 콤플렉스, IBC·MPC 등 사업계획이 아직 예산까지 완전하게 확정되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금년에 확정되고 예산도 확보돼서 내년에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지원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접근순환교통망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의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안전대책, 안전대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정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핵심적인 문화행사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전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과 관련된 절차,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부터 본격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부문이 아주 중요한 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아주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스폰서십 모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특히 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면 선수·심판·IOC·Top파트너 등 연관돼서, 대회참가자 관련해서 조세 감면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세법 개정 문제 또 대회특별법 중에서도 우리 실행 과정에서 도출된 또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이 부분은 특위의 지원을 받으면서 속히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 경기장의 관중들,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문제, 자원봉사자 운영 문제 이런 데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안전대책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7조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아래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대테러 방지·경비·소방 등 해서 부처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정원장으로 돼 있고요. 국정원장 주관으로 각 기관별·분야별 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별도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안전대책 계획을 종합해서 마련하고 거기에서 챙겨 나가는 체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개최 도시는 각각 기관별로 추진본부 중심으로 단계별 구조안전·기상이변·소방설비 등등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연관된 안전 분야 업무에 대처해 나가는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안전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소방 또 강원도 등 연관 요원들이 참여해서 기구를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 관련해서 함께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위는 대회시설 경비, 출입통제, 보안검색, 질서유지, 안내 전담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운영체계는 저희가 알기 쉽도록 정부·강원도·조직위원회 별로 각 분야별 체계를 정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방침은 정부·강원도·조직위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 그리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 책임 한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대테러라든지 요인 경호, 교통·방범 등 관련 기관별로 대처해 나가고 강원도의 경우는 시설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설 시공 단계부터 안전관리 및 점검 또 조직위는 대회기간 중 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안전대책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기관별·담당업무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테러·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기관별로 초동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기구가 종합대책반을 가동하는 체계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장·대회시설은 경찰청·강원도·조직위원회 등에서 시공 과정상의 여러 가지 안전대책 기준 또 경기장·시설별 전담경비 또 펜스·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해서 현장 통제, 비상시 대응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 신변보호는 국정원·경찰청·조직위원회에서 선수단뿐 아니고 주요 인사 등 신변보호팀 또 숙박·교통수단·이동로 등에 안전요원 배치 또 폭설을 비롯한 안전사고 대비 구조·구급대책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교통·수송 분야는 국토교통부·경찰청·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안전요원 배치 및 에스코트 그다음에 GPS시스템 구축, 교통관리망 간 연계, 교통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활동은 보건복지부도 참여하고 소방방재청이 주관이 되면서 소방·의료·화재·정전·가스폭발 여러 가지 안전점검 실시, 대피훈련, 구급활동 분야를 담당합니다.

외곽경계는 경찰 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필요시 군 안전요원까지 투입을 해서 경비 취약지 경계, 외곽경

비 등을 하게 됩니다.

또 식음료 안전관리도 보건복지부 식약청, 강원도가 참여해서 식음료 안전전담반 구성 운영이라든지 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점검 또 응급대책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입·출국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 법무부에서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출입국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성화봉송은 대회 지역뿐 아니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경찰청·조직위원회가 함께 해서 VIP·IOC 위원 등 경호 문제, 관람객 문제, 교통대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차량출입증 관리도 국정원·경찰청·조직위원회에서 위·변조 방지요소 문제, 보안대책 강구, 현장등록, 경비, 보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협력도 국정원·경찰청이 주관해서 정보협력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 문제와 관련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갑니다.

아울러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올림픽 안전대책 강화의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IOC 시설 안전기준, 신변보호 방안 등을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다른 올림픽의 사례를 저희들이 집중 분석해서 안전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민·관·학계 안전전문가로 안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경기장·선수촌 등에 안전요소를 반영하고 또 안전상 완벽한 대회시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저희들은 2016년 테스트이벤트 이전, 아주 조기에 발족하도록 이렇게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이벤트 때부터 완벽한 시험가동, 또 연구, 보완, 훈련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안전사고와 관련된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안전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의 안전인원도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충원을 확실하게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 겨울에 겪었습니다만 폭설·혹한 등에 의한 선수·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대책도 특별히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계획하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안전자문위원회 구성, 대책위원회 기본계획, 매뉴얼, 본부, 그다음에 모의훈련까지, 교육·훈련까지 일정한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략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또 정부에서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국민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평창올림픽이 가장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나오셔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님께는 축하드립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재선되셨으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셔야 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차 평창동계올림픽과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에서 강원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쏟아 주신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계획과 안전대책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방침과 진행경과입니다.

동계올림픽은 친환경·선수·경기 중심으로 짓겠다는 원칙 아래 프레올림픽 등 테스트이벤트의 차질 없는 개최와 국가대표 기량 향상을 위해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활용방안은 대회 이후의 공익성과 수익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2쪽,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건설하는 경기장은 총 8개소입니

다. 신설 6개소, 보완 2개소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년간 계속사업으로 총 6993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3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3월 4일 슬라이딩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 경기장별로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모든 경기장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올릴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IOC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 보상비와 물가상승분 때문에 당초 사업비보다 1591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긴 하나 증액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속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3쪽, 사후활용방안입니다.

사후활용방안의 대상 경기장은 총 8개소입니다마는 보조경기장까지 포함해서는 11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관리운영 주체가 결정된 곳은 5곳입니다.

슬라이딩센터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관리위탁 협의 중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나머지 5개소는 시·군으로의 관리 전환, 민자 유치, 철거 또는 매각 등 다각적인 사후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입니다.

우선 사후운영 주체가 없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난 뒤에 철거를 전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경기장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조속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후활용방안 결정에 앞서서 민간전문가와 학계, 경기단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시설안전대책 보고해 올립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안전관리대책을 기관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강원도에서, 대회운영기간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대회가 끝난 뒤에는 사후관리기관에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와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수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기장은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폭설·강풍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를 반영했고 폭설 등에 대비한 재설시스템 또한 각 현장별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립니다.

기존 경기장 시설의 안전관리도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등 3개 경기장에 대하여 금년 6월 2일에 건축 분야 등 7개 분야 44개 항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경기장들에 대해서도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올립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경기장 3개소, 용평 알파인·보광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이 3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민간과 함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9쪽부터 25쪽,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계획과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재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문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생방송, 생중계 중이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도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 재선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도민이 우리 최문순 지사를 재선시켜 준 의미가 뭘까요? 저는 뭐라 그래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라는, 책임 있게 치르라

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난 4년도 잘 준비해 오셨지만 앞으로 4년도 잘 준비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개최되고 끝나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18개 시·군이 뭉쳐서 치른 경기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시설이 있는 몇 군데 시·군이 합쳐서 했다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18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강원도 도민 전체가 아주 멋진 대회를 치렀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또 그렇게 도민들이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더 관심 있게 해서 저 끝에 있는 고성에서부터 저 밑에, 태백이 제일 끝인가요? 태백이야 가까이 있겠지만, 하여튼 철원까지도 전부 내가 치렀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 김진선 위원장님, 안전대책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한번 볼게요. KBS 영상자료,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스키점프대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게 방영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초속 3m가 되면 경기가 정지되고 초속 5m가 되면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에다 보완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백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스키점프장은 2006년 착공해서 2009년 완공이 됐는데 처음 입지 선정을 해서 시설 설계를 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기상여건까지 체크해서 세계스키연맹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나은데 바람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밀하게 체크해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2018년 올림픽 유치 시에 K125라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 K125 점프대에서 관측장비를 설치했는데 그때는 평균 풍속이 2.5m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백재현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어쨌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가 2012년 12월에 두 곳에다가 신형 관측장비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후에 착지지점까지 전체 해서 4개소를 설치해서 6개 지점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결과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풍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체크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단히, 저게 산 정상부에 있잖아요. 아마 저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될 시설인데 거기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방풍시설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저것은 경기 중에는요, 이번 소치 때도 방풍시설을 일부 해서 했는데요.

○백재현 위원 어쨌든 옮겨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저게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경기 때만 했다가 철거해서 다음에 못 쓰는 시설물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적어도 완벽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미관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저희가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은 정밀하게 측정만 하고 있다, 측정결과를 분석해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말씀하신 거지요, 답변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야지……

○백재현 위원 측정은 지금까지 한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니, 더 좀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더 해야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FIS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더 해서 방풍이 필요하면 방풍을…… 이게 지금 예컨대 스타트 지점하고 점프 지점하고 전부 또 다릅니다, 바람 속도 문제가.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 스케줄도 그걸 전부 체크를 해 보고 또 조정도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밀하게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열리는 시기가 2월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겨울인 만큼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게 속출할 수 있고 거기는 또 저도 가끔씩 가 보는 곳이긴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사실 변화가 무쌍한 데가 그곳이에요. 그게 뭐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완벽한 시설로 해서 방풍을 해야지 그냥 뭐 시간대별로 조정하고 시간대별로 경기 운영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가지고선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연습도 계속해야 될 곳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시설을 보완을 해서 거기서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도 안전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가 특히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쭉 들으면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 분야별로, 이걸 또 유형별로 전부 사전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치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저으기 안도가 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이것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믿고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 특히 최문순 지사님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민들의 선택을 받고 다시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이끌게 되셨는데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특히 사후활용 문제, 이거 대단히 중시하면서 지금 준비한다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경제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둬 가지고 추진한다고 계속 그렇게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아이스하키 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들하고 도민들 또 관련된 지역 시민들한테 조직위나 강원도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거의 다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경제성을 감안해 가지고 강릉에서 경기를 치른 후에 원주로 이전하는 걸로 전부 다 발표를 하고 그렇게 믿게끔 수년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설계도 끝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갈 이 시점에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니 없니 하면서 논란을 거치면서 이전을 하니 안 하니…… 특히 지사께서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이틀 전에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로 이전하지 않고 이전 비용 630억을 원주에 주겠다 이러한…… 무슨 근거로,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원주시민들한테 혹시 아이스하키 경기장 필요 없느냐고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김기선 위원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분명히 좀 말씀해 보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기본원칙은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다만 원주에서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들도……

○김기선 위원 누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원주시민들한테 의견 모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건 뭐 공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김기선 위원 그러면서 지사께서 그 중요한 거를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원주로 이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문제는 우선 기본원칙이 기존 입장과 같으나 원주시민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김기선 위원 뜻을 모아 보시지도 않고 그거를 선거 직전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지금 정부가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계 다시 해 가지고 경제성 있게 하라라고 그 논란을 갖다 자초한 게 지사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원주시민들의 의견이 갈려 있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의견들을 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김기선 위원 지사께서 원주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는지 한번 시민들 의견을 모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공식으로 모으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지금 만약에 그걸 공식, 이걸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잘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런 식으로 경기장을 건설하고 사후활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하고 국민들하고 도민들,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한순간에, 그것도 더군다나 설계까지 다 마치고 곧 시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설계는 좀 이축을 할……

○김기선 위원 이것이 지금 거의 시간이 없다, 이제는 시행착오 그걸 겪을 그런 여유가 없다, 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설계는 이축할 수도 있고 그냥 헐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다 할 수 있게……

○김기선 위원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국회에다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전에 가장 적합하게끔 경제성 있게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해서 경제성 있게 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그래 가지고 그거 다시 경제성 있게 설계하라 이런 말을 정부로부터……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좀……

○김기선 위원 이렇게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이축 비용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650억 원을 정부에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총리께 드린 바가 있고요. 우선 이축 비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축을 할 것인지 강릉에서 헐고 원주에 새로 지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잘 모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신뢰와 관계돼 있고 또 지역과도 관계돼 있고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발언한 이후에 파장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회가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할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시기에 또 이거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혼선 초래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도민들 또 관련된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고 우선 650억 원 확보하는 데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이전하지 않고 이전 비용 630억, 추계라고 그러던데 630억 원주에 줄 수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래서 그거를……

○김기선 위원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던데……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김기선 위원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지사께서 할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에 650억 원을 해 주십사 하고 대회지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거 약속한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재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난해 제가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문순 지사께서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마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강원도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윤호중 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고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특히 여주-원주 간 철도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강릉까지 열차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고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말이지요,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설계 등 후속 절차 이행 문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경기 시설을 2016년 말까지는 완공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험 운영이라고 할까요? 프레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거고.

또 오늘 우리 회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충분히 갖춰져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또 완공 이후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재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사후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문화체육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이게 사후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이걸 허는 게 낫겠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상의 과정에서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이걸 아예 사용 후에 철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설계 단계에 사용 후에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용 방법이 나오면 쓸 수도 있고 이런 설계변경 과정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재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 옆에 김진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시설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한 1년여에 걸쳐서 시설 협의를 해 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설계를 하게 되면 다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닌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당연히 거칩니다. 거쳐서 안전뿐이 아니고……

○윤호중 위원 경기 운영에 관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주어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협의를 하고 계획도 승인받고 또 짓고 난 다음에도 공인받고 하는 절차가 있지요.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만약 논의가 된다면 정밀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등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좀 아주 정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설계 전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짓기로 하면서 그때에 초기 단계에는 스케이트인 전체가, 체육회에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스피드스케이트 전용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애기가 있었습니다. 최종 단계에, 제가 그건 또 다뤘기 때문에 아는데 정부하고 대한체육회에다가 전용 경기장 앞으로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의논해서 강릉시장보고 그거 강릉시에 건립하는 거니까 최소 비용으로 임시 시설용으로 처음부터 지어 가지고 나중에 사후활용 문제가 없이 철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강릉시에서 강릉시민들 의견을 묻고는 강릉시장이 기왕에 짓는 건데 사후활용할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예를 들면 워터파크 같은 걸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전용 경기장이 필요 없다면. 그걸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도 건의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된 겁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돼 온 거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래서 설계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정신은 맞다고 봅니다만 어떡하든지 최소 경비 그다음에 최대 효과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정확하게 사후활용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안 된다고 그러면 비용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까 경기를 잘 치르고, 잘 치르되 더 안전하게 치르고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사고 없는 동계올림픽을 만들자, 평창을 만들자 그것이 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사후활용은 안전하게 경기를 차질 없이 치르면서 이왕이면 사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또 이후에도 시설이 강원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치르는 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충분하면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재설계를 할 경우에 1년 이상 IOC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 1년 정도 늦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2017년 말 정도에 완공이 돼서, 물론 여기 재설계 기간을 지금 뺐습니다. 그 정도 늦춰져 가지고 시설점검도 제대로 못 해 보고 경기부터 그냥 바로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가, 그만큼 사후활용에 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마침 여기 아마 문체부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체육국장이…… 잠깐 나갔고요.

○윤호중 위원 체육국장 잠깐 이쪽 자리로 좀 나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잠깐 나갔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지금 잠깐 나갔는데요.

○윤호중 위원 자리를 비웠다고요?

○위원장 김재윤 일단 그러면 과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예.

○윤호중 위원 과장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국제체육과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성함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속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한민호입니다.

○윤호중 위원 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설계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워터파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 같지 않다, 사후 활용 방안을 다시 마련해라……

국장 오셨으면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 한민호 예, 국장님……

○윤호중 위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재설계 지시에 대해서요, 이게 사업체를 선정하기 직전에 공고까지 했다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재설계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경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설계 지시를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상일 시간 일정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치르는 데 문제는 없다는 판단까지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상일 예.

○윤호중 위원 문제가 확실히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상일 최대한 노력을 하면 경기에 큰 차질이 없을 거란 판단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조직위원장님 말씀은 IOC하고 1년여에 걸쳐서 시설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공기 여유라는 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거의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1년여의 시간을 지금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1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확인, 승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답변합니다만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런 접근방식으로 한번 정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최종 결론을 내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와 강원도, 문광부 다 이렇게 같이 저희 조직위에 참여해서 협의를 하고 실제 그것이 얼마만큼 절약될는지 사후 활용이 충분히 어떻게 될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계와 절차들이 얼마나 걸릴는지 이걸 아주 정밀히 분석해 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결국 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원도하고 또 문체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요. 충분한 공사기간 그리고 또 지금 안전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그 계획을 고려해서 결론을 잘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사후 활용이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설계 지시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 말씀하신 공기 확보는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주신 걸 명심해서 공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입니다.

철저한 준비,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제적인 화합 한마당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경제성이 있는 흑자 평창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한번 점검을 같이 해 보도록 하십시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과 우리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짚으셨던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 재설계 여부와 관련해서 한번 지금 나오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보십시다.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은 소요예산이 한 93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대기업의 워터파크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이셨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은 한 7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철거 후에 원주로 이전하고자 했다, 이것까지가 당초의 팩트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원주시민 쪽의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게 조금 차질이 생기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재설계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재설계로 확정된 겁니까, 고려하는 상황입니까? 우리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그 재설계를……

○박대동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가부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확정에 가깝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공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박대동 위원 문제는 안전한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설계하게 되면 최소한 1년 이상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2017년 2월로 예정된 그 테스트이벤트가 사실상 어렵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렇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박대동 위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IOC나 IFs의 경기장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조직위원장님 이론상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런 것도 예측이 될 수가 있습지요.

○박대동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밀히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최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대동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공기를 단축시켜서 굉장히 서둘러서 이게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래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안전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 평창올림픽은 그야말로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제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어느 것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차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화부에서 나와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후에 동계올림픽에 관한 해외 국제선수단들을 훈련장으로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러나 철저하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박대동 위원님 말씀 다 타당하시고,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이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데 성공적인 그걸 위해서 이 점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다음에 안전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스키점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이 강원도 평창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형적 특수성, 동계올림픽이라서 가지고 있는 계절적 특수성 또 우리 남북 간의 대척 상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중동 쪽에서의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 있다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테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컨대 화재, 가스폭발 또 폭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렇지요? 특히 그쪽은 또 강풍 그리고 혹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유관기관 간에, 법에 의해서는 테러에 관해서는 국정원장이 위원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조직위원회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간에 아주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하

나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테러 말고 전체 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외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적 의견 그것을 다루는 것은 정부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거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대테러 안전대책' 이렇게 지금 우리 법과 시행령에 돼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총컨트롤타워가 국정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책본부가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본부장은 국정원에서 파견하는 차관급이 담당하게 되는, 이것은 전례의 88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에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되고, 그다음에 각 분야는 각 부서별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대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지금 8개소에 13개 경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화재가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폭설로 인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현지 책임자가 어디로 구체적 의논을 합니까? 기관 쪽에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대회조직위원회에 저기 그 뭐야……

○박대동 위원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것은 다 돼 있고요. 종합대책본부가 설치됩니다. 대책본부가 설치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대동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본부에 고유한 번호를 하나 주시든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주면 거기에서 해당된 파트로, 바로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세월호를 봤을 때 위에 중앙에 본부가 있지만 현장하고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했지 않았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박대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위원장이지만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못 하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박대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간다,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면 어떻게 그 대응팀이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반복, 반복 주지·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꼭 성공한 올림픽이 되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최문순 지사님, 여하튼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최동익 위원 경제올림픽 얘기하시는데 또 이번에,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업적 중에 양양공항을 좀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올림픽 과정에서 전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뜰 텐데 그 양양국제공항에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 국제공항으로서의 모든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짧고 시설이 좀 작기는 하지만 모든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 전 세계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평창올림픽 때 양양공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질 같은 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있고 한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림픽만 하고 나머지 경제적인 부수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관광자원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 이게 시설 인프라가 모두 끝나면 그 이후에 관광,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경제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원도 같은 경우 남북 긴장 관계 때문에 고성 같은 데 경제적인 피해가 심한데……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많은 사람이 오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강원도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최동익 위원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장애인 관련된 재난대책에 대한 문제를 복지부에 제기했었고, 또 지난번 소치올림픽 결과 보고할 때 장애인 분야가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PC에 관련된 장애인올림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하나 그 내에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기존 부서에서 알아서 챙기겠다고 말씀을, 늘 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분명히 장애인 재난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재난대책은 고사하고 편의시설조차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위에서 장애인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난대책은 고사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편의시설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부위원장을 셋으로 늘리셨다고 했는데, 원래 셋으로 늘리면서 IPC를 책임질 수 있는 부위원장을 임명해라 그게 제 요구사항이었는데 그 부위원장을 늘리면서 다른 자리로 늘리시고 또 아직까지도 장애인올림픽 관련 조직은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재난대책에서도 일체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재난대책은 고사하고 편의시설조차 다 빼놓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IPC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적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지금 조직위에 장애인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지금 준비하는 전체가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함께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에 들어가면 각론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IPC 계획들을 별도로 좀 정밀하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국회 들어온 지 2년 됐고 평창특위를 제가 2년, 그러니까 만 2년 하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보고만 하시고 실질적인 아웃풋(output)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저희가 장애인올림픽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 그 IPC 치르기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재난대책이 뭡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우리 빙상경기장의 경우에 장애인올림픽 치르는 데 4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3월 19일 날 아시는 대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예비인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설계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책이 뭐냐고요. 그것은 편의시설이고요.

재난대책이 뭐냐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재난대책은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총괄에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오늘

총괄안전대책 속에 구분은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대책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대책과…… 그러면 실내체육관일 경우에 장애인 대책, 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지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다 멈추게 되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피난로는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슬라이딩 램프라든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 위원님, 위원회 할 때마다 말씀하지만 패럴림픽 분야만 따로 한번 계획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 계획을.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제대로 좀 꾸려 주셔 가지고…… 슬라이딩 램프 같은 것 없어요. BF 인증에는 그런 램프는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BF 인증이라는 것은 액세서빌러티(accessibility)에 대한 인증이지 재난대책에 대한 인증이 아닙니다. 지금 BF 인증 받으셨다고 해서 그 재난대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평창특위 때에도 지적을 해서, 이천장애인훈련원 같은 데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것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평창특위는 자료를 보든 뭐를 보든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최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올림픽 안전대책은 별도로 빼서 별도로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최 위원님도 조언을 주시고 안을 주시면 별도로 마련하겠고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평창올림픽 준비의 프로세스상 안전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전체 종합계획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그 국가안전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디서, 1개 팀에서 하게 되나요? 소방방재청이 나오고 이러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상적인 정부의 기능상의 안전문제는 안전처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올림픽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또 안전대책본부가 별도로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기관을 장악해서 별도로 올림픽만을 위한 안전대책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하여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자세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은 따로, 패럴림픽은 항상 별도로 대책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과 지사님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올림픽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 관리방안 말씀을 합니다마는 관리방안은 사실 활용방안이 잘 마련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치하는 고객도 많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관리방안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지금 철거하는 곳이 한 3개소고 개·폐회식장도 임시 관람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올림픽의 가치라는 것이, 올림픽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장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동계스포츠의 발전, 산업의 발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올림픽 경기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가능한 한 소치만큼의 과잉투자가 아

니라고 한다면 올림픽 유산을 남기는 쪽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굉장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조직위원장께서 강릉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활용방안에서 초기 단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우리 조직위원회 아이디어라든가 또 시공사·설계사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공이 돼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보다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마케팅 전문가, 관광 전문가, 도시 전문가, 뭐 이러한 사람들을 총괄한다거나 또 우리 국민 중에서 공모를 통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폭넓게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활용방안이 아무리 잘 마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활용될 수가 없다, 관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철도가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만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잘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장 자체의 활용방안보다는 도시 인프라, 관광 인프라, 그래서 배후도시 또는 개최도시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이 잘 만들어지면, 또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면, 또 경기장 사후방안이 잘 마련된다고 한다면 저는 올림픽경기장 사후 방안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점을, 핵심을 올림픽 자체, 경기장 자체에 대한 활용방안에 두지 마시고 배후도시 거기에 관광·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온다고 한다면 활용방안은 저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해 보면 경기장 자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시설 인프라가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디자인·마케팅·도시·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조직위원장님, IOC에 보게 되면 IOC 비드 파일(bid file)에 저희들이 올림픽 유산으로 남는 몇 가지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올림픽경기장과 교통 인프라 그리고 동계스포츠 종목의 발전 그리고 동계스포츠 산업의 발전 또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 이런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IOC에서 1차, 2차, 3차 조정회의까지를 했으면서도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우선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언을 말씀드리면 그 지적이, 아주 전적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늘 사후 활용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연구하고 확인하고 사례를 검토하고 합니다만 제가 느낀 결론은 이 사후 활용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경우이든지 완전할 수 없고 100% 만족할 수가 없고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화·발전하고 또 여러 연구될 부분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미리 다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늘 이해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설치해서 아까 말씀대로 훈련장으로도 쓰고, 예를 들면 지금 가리왕산 중봉 활강 스피드 경기장을 만드는데 워낙 중요한 경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고난도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충족해야지 그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통상적인 레저용으로는 그 위에까지 난이도가 높은, 버티컬 드롭(vertical drop)이 큰 그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계획상은 정부에서도 윗부분이든지 어디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복원을 하고 밑에만 레저용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하고 이럴 때에 활강 스피드 경기장은 올림픽을 치른 나라인데 하나 정

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체육인들의 요망사항이고 또 국제무대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대회 할 때도 있으니까요, 세계선수권대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이런 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인데, 여기에 문광부도 나와 있고 도지사님 계십니다만 저희가 서로 논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조직위 차원에서는 대회 운영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거니까 문화와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것은 대회에 직접 연관되는 것, 개·폐회식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문화 내지는 예술·관광과 관련된 정책 준비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거니까 문화부하고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또 추진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다만 운영할 때에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들…… 이번에 평창올림픽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걸 개발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때에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종합 축제화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세계연맹 동계스포츠 단체장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IOC에 보면 비드 파일이라든가 조정회의에서는 전혀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테크놀로지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리고 대회 운영 이런 부분만 사실은 점검사항인데, IOC에 사실 이런 걸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실제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IOC가 IOC의 이윤추구만 생각하지 말고 개최 도시를 어떻게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내놓느냐,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파트 정도는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물론 IOC가 받아들일 리 없겠습니다마는 IOC한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올림픽조직위원회도 그러한 부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부라든가 강원도도 문화·관광은 사실 뒷전으로 밀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원도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평창군·정선군·강릉시 그리고 그 인근 도시 정도는 하나의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통합 마케팅만 하고 조그마하게 통합적으로 디자인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명품도시를 갖출 수 있는 자연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광국장님 그리고 강원도지사님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은 대회만을 위한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관광을 지금부터라도 속히 좀 다뤄야 한다, 우리 핵심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도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현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안전대책 운영체계, 지금 6쪽에 있는 건데요. 지금 정부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가 수평적 관계로 조직도상은 되어 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 그것은 '수평적으로'라는 개념……

○김현 위원 아니, 조직도는 그렇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것은……

○김현 위원 어쨌든 그 조직체계가, 어떻게 그 그림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이것은 정식으로 정해진 조직체계가 아니고 각각 서로 할 일이 있고 상호 협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현 위원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김현 위원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2016년도 하반기에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국정원 차관급으로 구

성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기관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아직 그게 구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정원 차관급이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대테러를 중심으로 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급이 되지 않을까……

○김현 위원 3차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조직도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것은 제가 저쪽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3차장은 과학 파트, 정보 파트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테러는 또 2차장 소관이거든요. 북한 관련은 또 1차장 소관이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2010년도 애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에는 이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걸 국무총리로 보고를 하셨어요, 당시에 기관을 유치할 때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년도에 제정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국정원장이 이걸 담당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거든요, 국내법에서.

제가 어제도 아시안게임 준비하는 주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상투적인 결정입니다, 2012년도의 결정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지요. 국정원이 안전을 담당한다, 대테러를 담당한다, 이러면 국민들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서울의 내곡동에 앉아 있는 국정원장이 강원도의 지형지물을 어떻게 안다고 그 안전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총책임 지겠습니까?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1988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2년도를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이전 체계랑 달라진 것이 감안이 안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특히 강원도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해에 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예상이 가능한 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컨트롤을 국정원장이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비드파일 낼 때는 안전대책위원장을 총리가 하고 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의 국제 관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유치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최고의 정책적인 중요한 결정과 이런 것들은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하고 그 외 각 분야별 요소들에 대한 지휘·책임은 장관급들이 하니까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어디서 관장하고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이 안전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테러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면서 대테러뿐이 아니고 방범, 교통 뭐 모든 것들, 또 경계…… 그래서 거기에 국방부, 경찰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또 하나는 2013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행부장관이 컨트롤타워지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해상에서는 해수부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의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장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간첩도 잡아야 되고 국내 정치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공작도 하고 댓글도 다는 국정원장이 이 바쁜 와중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 거기 가서도 또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단 말이냐는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국제행사의 특수성 때문에 아시는 대로 별도로 이것은……

○김현 위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도지사님이 빠져 있어요, 이 구성에.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되니, 폐지가 되니 지금 현재로는 국가안전처에…… 이 정부가 세월호 터지

고 나니까 호들갑으로 조직을 해체한다고 그럽니다. 없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기장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방재청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119가?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또 국무총리, 안전처 소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위가 지방공무원이거든요. 도지사 관할이에요, 또.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우리 군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대가 편성되면 배속시켜서 그 지휘를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때는 전부 이 추진본부하고 안전위원회의 지휘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천착하시지 말고요, 2012년도에 정해진 이 제정을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이 투입돼야 되고 경찰도 투입돼야 되고 민간도 투입되기 때문에 테러 담당인 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판에 박힌 주장이라는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저희가 공식으로 조직위원장하고 도지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말씀을, 그 뜻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온 국가가, 국가 개조를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서 새롭게 전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대책이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보고, 특히 아시안게임에도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역시도 북한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안전……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한 안전은 또 경호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검토할 것을 재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소방방재청을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개조안인데요,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총리실 산하로 들어간다면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격상시키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이 제도를 확정시키고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의 경험을 좀 기초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가능하면 현장 중심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김현 위원 사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평창의 눈, 강릉의 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2017년도 되면. 그러면 투입해야 될 인력이 군, 소방방재청, 경찰 이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지방직 공무원이거든요, 특히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방 재정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장비도 틀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세월호에서도 구조가 민간 구조원들이 훨씬 더 장비가 좋고 해경 장비가 나빠서 잠수는 민간이 하고 해경은 옆에서 생명선만 잡는 이런 국가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갖고 재선이 되신 도지사님께서 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현장에서의 답을 갖고 안전관리도 하시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좀 쥐셨으면 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고맙습니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아, 최문순 지사님 죄송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권성동 위원 김진선 도지사님이 3선 하시는 바람에 입에 붙어 가지고 제가 깜빡 실수를 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감사드립니다.

○권성동 위원 요즘 안전이 국가적인 화두로 거

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시설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금년에 아시다시피 강릉지역에 100년 만에 대폭설이 내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돼 있어요, 지사님.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폭설이 내려서, 그것이 만약 4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올림픽이고 뭐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운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대강의 안이라도 오늘은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점이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장 같은 경우에 비용 문제 때문에, 사후 활용 문제 때문에 가건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건물이 과연 1m가 넘는 폭설에 안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역시 좀더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눈이 내렸을 때 경기장까지 접근은 어떻게 하고 제설은 어떻게 하고 또 교통은 어떻게 하고 관광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방안이라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평상시에 구상을 했거나 또 이번에 도지사 경선하면서 그런 질문 나올 때 대비해서 모범답안도 마련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봄에 큰 피해도 있었고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올림픽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대책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알고 있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폭설 2m 이상 기준에 맞도록 튼튼하게 짓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성동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다음에 폭설 같은 경우는 빠른 제설이 필요한데 제설장비 투입에 지금 한 6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경우도 특별수송대책 같은 것은, 그것은 아직 상세하게 서 있지는 않지만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제설은 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그리고 일회성 제설을 위해서 많은 제설차량을 구입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제설차를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김진선 위원장님, 대회 운영은 조직위 담당 아니겠습니까? 제설대책 마련한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우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기상황별로 관심·주의·심각 단계 이렇게 위기상황을 놓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기본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통신이 중단되면 절대 안 되니까 통신회선 지중화 및 선로 이중화장비로 이원화로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눈 치우는 게 우선이니까 도로공사하고 도로관리청, 강원도 등에서 제설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특히 권 위원님 소속된 강릉 이런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많은 눈이 와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전국의 유형별 장비들을 추가 동원해서 비상대기를 딱 시켜 놓고 대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나름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사님, 이것 강원도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기재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다 힘을 빌려야 되니까 이것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총리 주재 올림픽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 번에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강원도하고 조직위가 유

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총리 주재 회의에서 한 번에 모든 사항이 결정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내년도 10월 달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재선되신 최문순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이한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3월부터 시설공사가 시작이 됐더군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중에서 영구시설도 있고 또 임시시설도 있고,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한성 위원 어제인가 인천아시안게임 임시가설물 부분 공사하는 것을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SBS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검수해서, 아마 엄밀히 검수를 했겠지요. 그래서 테스트이벤트도 했다 하는데 난간 테두리가 안 맞아 가지고 연결이 어긋나는 바람에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봉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테스트이벤트를 하고 또 공사비를, 검수했으니 공사비도 줬겠지요. 이게 참 세월호 참사 비슷하게 무슨 인사를 얼마나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검수하고 공사비를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안전하고 시설비 최소화하고는 양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 곡선하고 시설비 최소화 곡선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아마 극도의 지점 같은데 어디로 맞춰야 될지, 안전을 강조하다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전이 강조가 되는데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 발생한 지가 두 달이 지났는데 참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난간이 유치원 울타리 정도 돼요. 가늘가늘 한데 그 흥분한 관중이, 뭐 경기에 골이 들어갔다 하면 '와' 막 일어서고 쿵쿵거리고 껴안고 이렇게 할 텐데 아마 그런 가설스탠드에서는 조심스러워서, 경기장 무너질까 봐 박수 조심스럽게 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한 군데로 쏠리면 그냥 다 넘어지고 바로 그 난간 밑에는, 외부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한 15m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검수를 했고 잘됐다. 이제 테스트이벤트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안전의식이 아직도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사비가 크게 증폭되지는 않을 겁니다, 알뜰하게 쓰면. 관점의 문제고 관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치원 울타리 비슷한 것을 해 놓고 지금 다 해 놓았다 하면서 건드리면 벌룽벌룽 해요.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감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걸으면 바닥이 벌룽벌룽 해 가지고, 테두리 만지면 테두리가 이렇게 휘어 가지고 울럭울럭하고 이래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걸어 다니겠습니까? 밑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런 물병이 그냥 밑으로 빠져 가지고 외부 아스팔트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데…… 대단히 원시적이고, 대단히 참 거칠다고 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이벤트까지 했다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을 좀 더 잘 검수를 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검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무슨 인사를 받아 가지고, 무슨 관피아가 있는지 상대방 업체에 누가 시청 출신이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검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세월호 꼭대기의 객실을 107개 증축했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아까운 혈세를 쓰면서 부끄럽고 참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구 건물 중에는 피겨스케이트장이나 쇼트트랙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하고 또 몇 개 스피드스케이트장이나 아이스하키경기장 이런 것은 철거해서 다시 매각한다 이런 계산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 경우에도 가설 스탠드 철제 강제는 해체해서 팔면…… 철강제 무게는 또 유지가 되니까 튼튼하게, 또 시공비가 좀 올라가겠지만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걸어 다닐 때 적어도 탄탄한 바닥이, 좀 꿀렁거리지는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불안감이 없지 바닥 벌룽벌룽하면서 지나가 보세요. 난관도 이음새가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테이프로 붙여 놨어요. 거기서 혹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면 바로 그냥 외부 15m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할 겁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 다 질문이 해당될 텐데,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는 철도를 놓는다는데 철도는 총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IOC에는 68분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서울에서는 1시간 될 것 같은데요.

○이한성 위원 인천공항까지는 한 20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인천공항에서는 KTX 저기 올리고 지반공사 좀 하고, 원주까지 복선전철이 이미 개통됐는데 그것도 아마 속도를 좀 더 높이려면 지반공사를 약 1000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 되면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는 약 90분 미만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최동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양양공항 활용 문제인데 사실 원주공항이 좀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원주공항, 그 군사공항?

○강원도지사 최문순 원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어서 지금 양양공항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한성 위원 양양은 국제공항이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양양은 국제공항입니다.

○이한성 위원 활주로가 그러면 양양공항이 더 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이제 양양공항이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더 길고 비행기가 A300급 수준의……

○이한성 위원 양양공항이 활주로가 좀 짧은 편인 모양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게이트도 6개로 늘리고 뭐 이렇게……

○이한성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후 시설 활용 문제가……

아마 솔트레이크 경기장은 성공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다 채산을 못 마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한성 위원 그런데 강릉에 피겨경기장, 쇼트트랙경기장은 활용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동계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용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을 비싼 회원제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회비가 1년에 한 700달러 그 정도 내고 운영을 해서 겨우 채산을 맞추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기가, 더구나 강릉은 시골지역이라서 주민들의 소득도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 덜할 테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채산성이 맞는 방향으로 잘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말씀하신 주신 세 가지 문제 잘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안전 문제는 저는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나 환경은 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의 중심이 바뀌어 가는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이 담당하는 형태의 안전대책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평창동계올림픽과 비교해 봤는데 90일 남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보다 4년이 남은 동계올림픽위에서 안전대책을 더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차원에서는 안전대책도, 실제 모의훈련도 한 바가 있고 등등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경기가 가까워진 시점에 과연 어떤 부

분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충분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충분히 협의하되, 다만 현재 지금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주도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유치신청서 비드 파일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경찰로 해서 신청했지요?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은 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C 신청서상의 안전대책위원장은 또 국무총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빨이 안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완결된 시스템으로 잘 굳혀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일정 정도 시점에는 완료돼야 되고 상시 조직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 조직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대책이 마련될 시점에는 이 부분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정부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처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른 안전대책의 시스템의 변화는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다음에 최문순 지사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황영철 위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다 사후 활용 용역을 강원도가 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왜 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이것은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완전히 그 용역 결과에 따르지는 않는 용역이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고 방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론을 맺고 있어요.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워터파크 계획에서 철거 및 매각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원주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 아이스하키장 원주 이전을 철거 및 매각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지사는 어쨌든 방향을 확정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곧 확정지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확정지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면 아까 김기선 위원님의 질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원주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언제, 어떻게 들으실 계획이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원주시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경기장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내년에는 사업 발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초에?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결론을 내야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끝날 시점에 옮기게 되는 것이니까 시간 여유가 충분합니다.

○황영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장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설계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 아닙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 설계는 헐어 버릴 수도 있고 다른 기회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합니다.

○황영철 위원 설계를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설계해 가지고서, 몇 가지를 놓고서 설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를 시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한 가지로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설계를 하고……

○황영철 위원 요소를 다 넣는데 이것을 원주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과 철거 및 매각 계획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를 다 넣어서 해서 나중에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도지사님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러니까 아이스하키장 1은 헐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황영철 위원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설계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전체적인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후 활용 계획에 변화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이 질의시간 내에 지사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황영철 위원 어쨌든 문체부의 입장, 강원도의 입장 또 조직위의 입장 각각에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용역보고서 이후에 입장……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정리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황영철 위원 정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도지사이자 또 당선자 신분이시기도 하신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윤관석 위원 재선되시고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역시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잘 치르는 것인데, 앞에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후 활용 관련해서 이게 워낙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또 많은 제안도 있고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집에 나온 것만을 갖고 볼 때, '사후 활용 계획 및 안전대책' 강원도가 제출한 것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사후 활용 방안에 그간 추진사항뿐 아니라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활용 설계 반영을 위한 전문기관, 이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 2월에서 6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 반영 보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장 설계 시 사후 활용 고려사항 반영했다, 8개 경기장과 5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 6월에 나왔던 이 자료가, 저희가 2013년도 6월 28일 날 국제경기특위를 했었어요. 거기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6월 말에 끝난다고 해서, 28일 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특위를 열어서 '사후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이 연구용역의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냐……

그러다가 작년 11월 15일 날 특위를 또 열었는데 이 책자를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 계신 김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가 있었는데 이 책자의 사후 활용 방안 내용들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 반영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에, 그것을 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54건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 겁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고요, 설계라는 것이 그 한 가지로만 딱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당시의 그 용역 결과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완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따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관석 위원 따로 하지는 않았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4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위원회도 같이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민간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최종적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 책자의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또 다른 용역이 아니라 일단 그걸 받아서, 또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고 또 다른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다시 재선돼서 4년을 준비하시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잘 종합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책자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정리돼서 보완된 게 있다면 그것도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선거를 통해서 다시 당선되셨는데 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한두 가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한 가지는 알펜시아의 스포츠지구 2711억 원을 매입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IOC 권고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해결이 돼야 될 일인데 증액분을 반영해 주시도록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강원도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 지난번 소치 가셨었지요? 그때 동계올림픽 보고 우리 강원도 동계올림픽 준비에 많이 참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후에 계획이 많이 보강됐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우리가 현재 계획했던 방식으로 차분하게 잘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소치는 윤 위원님도 그때 가보셨지만 아주 양적으로 많고 크고 또 외관 이런 게 중시되고 또 국가주의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이랬는데 우리는 질적으로 내실 있게 또 의미 있게 세계주의적인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투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예산이 사실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절약적으로 하고요……

○윤관석 위원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 도지사께서도 요청을 하셨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여튼 놀라운 것도 있었고 또 우려되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콘셉트를 잡는 데 도움되는 것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조직위에서 제출한 자료 언뜻 보니까 6페이지에

안전대책 운영체계 나와 있습니다. 이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안전대책기구 구성 7조, 이것 내용 다 보셨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윤관석 위원 보셨지요? 이게 문제가 있지요, 사실상?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면 대회운영 안전은 조직위에서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안전대책은 또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테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도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조직위가 다 담당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국정원의 테러 중심 대책만으로 안전 문제가 다 담보될 수 없는 거고 또 현장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또 여기 제출한 조직위의 안전대책 운영체계,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방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회시설은 경찰청 강원도 조직위, 신변보호는 국정원 경찰청 조직위, 교통수송은 국토부 경찰청 조직위, 화재예방 및 구호활동은 보건복지부 소방재청, 외곽경계 국방부 경찰청…… 죽 이렇게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고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이번에 교훈 삼았을 때 컨트롤타워, 현장에서의 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이 아니라 평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단 말이지요. 저희가 국회에서 관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부처가 없어요. 국정원 아니면 대회조직위, 그 지역의 지자체 정도인데 지자체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각 유관기관들 지휘를 해야 될 필요성, 역할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폭 개정을 통해서 안전대책 강화를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유념해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은 특히 위원님들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부조직개편 등등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된 변화도 있을 거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안녕하세요?

지사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사실 소치가 너무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장님과 조직위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평창으로 세계인의 시각이 돌아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늘 화두가 안전대책의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스키점프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테스트이벤트까지의 그런 풍속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계신 것도 자료를 제가 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그곳에서 국내 대회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 FIS 대륙간컵 대회 때 닉 선수 사고가,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규격이라는 것이 국내 규격하고 풍향의 속도가 맞다고 보면 국내 대회는 사실 안 해야 맞다, 아니면 풍향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안 되면 그것은 항상 위험을 안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현재 2013년도 2014년도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전적으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시합한다라는 것은 경기력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위험요소가 있다라는 것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큰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대회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정말 대회 개막 전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제가 문체부 때 폭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폭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사님, 사실 강원도가 100년 만에 너무 많은 눈이 연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돈이 200억이 넘게 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 많은 폭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설작업을 할 건가,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동원할 건가, 사전에 동원되는 인원들, 자원봉사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지 대처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부터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시가 되어져서 행동을 할 건가 하는 것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눈이 많이 왔을 때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추울 때 정말 혹한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 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조금 보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준비하셔서,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것의 대처요령 대처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에리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리고 앞으로 2개의 시설을 다시 짓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것도 눈이 많이 올 때, 지난번 리조트 붕괴 사고도 그렇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안 오겠지''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경기장들에 눈이 올 때 매일매일 그 제설작업을 사실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은 '스프링쿨러로 해야 되냐' '열선을 깔아야 되냐',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 눈이 내릴 때 매일매일 제설작업 같은 문제, 붕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으로 2개의 건물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만들어질 때는 내설 설계가 꼭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 지역에서 지금 시합을 하는데 강릉 지역이 특히 바람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게 많이 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많이 만들어지지요,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또 광고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이나 표지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강풍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인명피해가 없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통신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가 특히 산악지대라 차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도 와이파이 안 터져 가지고 통신이 두절되고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국제대회 때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의 문제입니다, 교통의 문제하고. 그래서 교통의 문제하고 통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서든지 통신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선수와 지도자 간에, 선수단과 운영위 간에, 조직위 간에 수시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IT가 세계 최고인데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키장 때문에 고속도로는 제설작업이 잘 돼 있는데 인접해서 들어가 있는 샛길 국도 이런 곳의 제설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양양공항에 VIP들이라든지 전세기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 더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게이트 문제, 보안의 문제, 입국수속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선수단이 도착해서 첫 번째 인상, 도착하는 곳에서의 수속과 절차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을 나쁘게 하면 그 올림픽은 50% 정도 망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림픽 준비하는 남은 기간 동안 지사님하고 도가 조직위를 잘 뒷받침해 주시고 또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성공하는 평창올림픽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이 회의는 안전대책 사고예방이니까 각별히 지금부터 살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국제경기대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회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상일 체육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서 국정원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각 조직위원회 안행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개최 시도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국제경기대회 안전대책을 잘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컨트롤타워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고 확정을 해서 안전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결과 및 안전대책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대회는 성공하겠지만 사후활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적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그리고 또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총리실 안행부 국토부 기재부 문체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조직해 가지고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도 국회가 정부에 그리고 또 강원도에 조직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국회가 정부와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다가 경고하는 겁니다.

사후활용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 부담, 특히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후활용 대책, 사후활용 방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마련하시고 국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일 국장님, 장관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국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 안행부 국토부 문체부 기재부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 2월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해 3월에 개최될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준비상황 및 안전대책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로부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의 사후활용 방안 재검토와 관련하여 예정된 준공기간 준수, 안전점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대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스키점프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도로·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예정 기간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테러·화재·폭설 등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자인·관광 마케팅 등 측면에서 올림픽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대회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진선 위원장님, 최문순 지사님, 추가로 할 말씀 계신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김진선 없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선 위원장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 성 동	김 기 선	김 재 윤	김 현
박 대 동	백 재 현	염 동 열	윤 관 석
윤 호 중	이에리사	이 한 성	최 동 익
황 영 철			

○청가 위원(1인)

박 혜 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 진 대
전 문 위 원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우 상 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 원 장	김 진 선
기획행정부위원장	곽 영 진
대회시설부위원장	김 상 표